

롯데쇼핑의 지속가능한 조달에 대한 접근 방법

롯데쇼핑은 1979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가 되는 것’이란 비전 아래 고객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적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원재료를 조달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제품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일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탄소 저장고, 토양 침식 예방,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 등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림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약 16억 인구의 생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림은 축산물, 임목재, 팜유, 대두 등의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 특히 파괴되기 쉬운 지구 생태계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원재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산림 파괴는 농업, 기후변화, 생태, 인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야기합니다. 이에 롯데쇼핑은 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산림파괴 영향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호, 동물복지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유통기업의 위치에서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여 기후변화, 가뭄 등의 기상이변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생태계 보존, 온실가스 저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는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산림과 농축산업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이 유통하는 제품들 중에서 긍·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 (구매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핵심 원재료를 도출 하였습니다.

본 정책은 축산물, 수산물, 팜유, 대두, 광물, 임목재, 면직물 등 각 원재료별 지속 가능한 조달 정책의 추진 배경을 비롯하여 조달 현황 및 접근 방식을 설명합니다. 나아가 동물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여 제품 유통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은 당사 및 당사와 거래하는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롯데쇼핑은 2022년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을 도입하며, 지속적으로 조달 정책을 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재료 조달 정책

1. 축산 (범위: 국내 신선 축산물 - 계육, 돈육, 우육, 계란)

롯데쇼핑은 건전한 축산물 유통 관행 정착에 기여하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지속가능한 축산물 조달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당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한 축산물 유통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롯데쇼핑은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은 공장식 축산이 식품 안전성, 전염병, 환경 오염 등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축산물 조달정책은 동물복지 관련 국제동향 및 국내 농장 동물 복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롯데쇼핑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제시한 동물의 5대 자유에 근거한 “농장 동물 복지 5대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롯데쇼핑 농장 동물 복지 5대 원칙

1. 농장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2. 농장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농장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한다.
4. 농장 동물이 고통 ·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한다.
5. 농장 동물이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 제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동물복지 제도에 따라 국가가 인증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인도적으로 사육된 동물복지 축산물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동물복지 축산물은 사육, 운송, 도축 과정에서도 동물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수반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롯데쇼핑은 축산물 이력제를 활용해 철저하게 원산지를 관리하며, 친환경 인증 제도(고유번호)를 통해 소비자가 친환경 관련 제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유통사 최초 동물복지 닭을 출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4월에는 동물복지 돼지고기를 도입해 현재 모든 지점에서 운영 중입니다.

또한 당사가 조달 중인 동물복지 강화 계란은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무항생제, HACCP, LOHAS 인증 계란,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 없이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계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계란 제품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롯데쇼핑은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롯데쇼핑은 무항생제 인증 및 동물복지 인증 상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축산물 윤리 및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2. 수산물 (범위: 국내/수입산 신선 수산물 -연어, 명란, 홍어, 전복)

수산물은 롯데쇼핑에서 유통하는 식품의 주요한 원재료이자, 바다에 서식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입니다.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수산물의 조달 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수산물의 전체 Value Chain에 있어 수산물 남획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응하는 등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수산물 이력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여 생산, 가공, 유통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적용한 수산물 이력제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어업량 유지,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MSC/ASC인증을 획득한 제품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원재료 조달 정책은 당사가 조달하는 모든 수산물에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재 MSC/ASC 협회에서 인증받은 연어, 명란, 홍어, 전복을 취급하고 있으며, 수산물 이력제 상품으로는 건멸치 3종과 미역다시마 3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팜유 (범위: PL상품 - 식품매장용 팜유, 초콜릿, 비스킷)

팜유는 과자, 라면, 빵, 화장품, 세정제, 바이오 에너지 원료 등 식품/비식품에 모두 사용되는 주요한 원재료입니다. 팜유는 높은 수익성, 토지 이용과 수확량 측면에서 효율적인 식물성 기름이지만, 팜유 농장들이 열대 우림에 불을 질러 경작지를 세우며 숲 황폐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팜유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식별되는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리스크를 인지하고, 팜유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급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지속가능한 팜유 협의체 (RSPO)' 인증을 받은 팜유 제품군 공급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해 지속가능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 회사들을 벤치마킹 하고, 지속가능한 팜유 조달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4. 대두 (범위: PL상품 - 식품매장용 대두유, 두유, 두부)

대두는 롯데쇼핑이 공급하는 대두유, 장류, 두부 등의 식품 및 바이오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재료 중 하나입니다. 비건식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식물성 단백질 시장수요 확대에 따라 대두 사용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대두는 지(地)력 회복에 도움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작물이자, 주요한 식물성 단백질원 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원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대두 수확은 아마존 산림지역 식생과 산림 황폐화를 야기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합니다.

롯데쇼핑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고자, 지속가능한 대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브라질 산림을 파괴하지 않는 Pro-Terra 인증과 지속가능한 콩 경작과 콩 산업 분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국제 계획인 RTRS 인증을 획득한 대두 구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대두 조달 플랫폼을 갖춘 글로벌 회사들을 벤치마킹 하고, 대두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공급업체를 찾아 롯데쇼핑의 지속가능한 대두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 광물 (범위: PL상품 - 전자제품, 귀금속류)

롯데쇼핑은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를 포함한 분쟁지역에서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3TG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에서 발생한 아동 노동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광물들이 사용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유통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쟁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롯데쇼핑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채굴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환경 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책임 광물이 제품 내에 포함됐는지 여부 또한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6. 임목재 (범위: PL상품 - 휴지, 종이, 키친타월, 미용티슈)

롯데쇼핑은 휴지, 종이, 키친타월 등 임목재를 원재료로 하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임목재는 생태계와 육상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합니다. 원재료는 생산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환경·사회 이슈와 연결되는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 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롯데쇼핑은 UN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천명하는 생물다양성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국내 한국산림인증(KFCC),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SC)와 같이 임목재 조달 및 공급에 관련된 법률 및 인증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지속가능한 임목재 구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 면직물 (범위: PL상품 - 이불, 의류, 커튼 등)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만큼 롯데쇼핑은 면직물을 원재료로 하는 제품 역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면직물, 의류 등 섬유 산업 분야도 지속가능성을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재생 섬유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 생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역시 지속가능한 섬유 및 면직물을 활용한 제품 취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당사는 RCS 인증(Recycled Claim Standard), GRS 인증(Global Recycled Standard) 등 원재료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상품화 완료 단계에서 인증이 유효한 섬유 제품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여 더 많은 고객이 지속가능한 소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정책

롯데쇼핑은 국내 최대의 유통 업체로서 유통과정 또는 자체 PB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연과 사회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패키징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사는 친환경 포장 사용을 확대하고, 재생 불가능한 포장재 사용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 확대

롯데쇼핑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징 형태를 이용합니다. 국내 포장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줄이고 과대포장을 방지하고자 당사가 유통하는 상품이 종류별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 횟수 규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기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이나 뚜껑을 제거하고, 無라벨 패키지를 적용하여 친환경 패키징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소재 활용

당사는 포장재 사용 후 폐기시 원활한 재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구성품의 포장재로 동일한 계열의 재질을 사용하며, 다른 재질로 구성된 포장재는 분리 배출이 쉽게 이뤄지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당사의 5RE* 실행 전략에 따라 환경 선순환 프로젝트 ‘함께 가요! 환경 5RE’를 추진하고 있으며, e커머스에서는 친환경적인 라스트 마일 포장방식 매뉴얼을 수립해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포장재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전 점포 대상 100% 물로 된 아이스팩과 친환경 종이봉투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고객이 소유한 보냉백과 장바구니 사용을 유도하는 등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Reduce(감축), Replace(대체), Redesign(재설계),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친환경 원료 사용

당사는 재생 가능한 포장재를 쓰거나 재생 원료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 포장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소재, 제조방법,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포장재를 우선 사용하고, 친환경 포장재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 인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재 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합성수지, 플라스틱 포장을 종이, 펄프 트레이, 재생 PP소재 및 생분해성(PLA) 소재로 대체하였습니다. 생분해성 소재(PLA)를 사용한 포장재는 매립 시 땅속의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토양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현재 롯데마트는 축산물에 사용되던 스티로폼 소재의 포장을 생분해성 소재로 대체하였으며, 명절 기간 버려지는 선물세트 패키지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재사용 가능한 보냉가방, 종이부자재, 물 아이스팩 등이 적용된 친환경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앞으로도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도입을 확대해 지구와 고객의 건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